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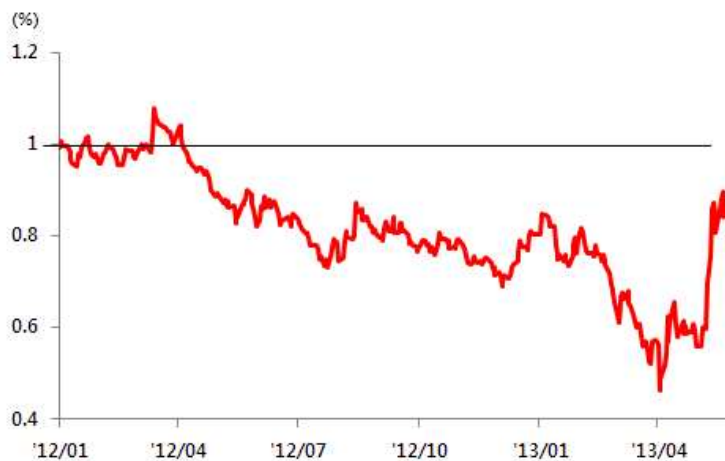


# 일본 국채 수익률 급등과 시사점

채원영 연구원

- 아베노믹스 효과로 일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이로 인한 재정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음.
- 일본 국채 금리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조치가 발표된 2013년 4월 급락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.
  -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BOJ의 양적완화 발표 직후 0.315%까지 급락하였다가 상승세를 보이며 5월 29일에는 0.94%의 높은 수준을 보였음.
    -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일본은행이 신규 발행 물량의 70%를 매일 매입하였음에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임.

〈그림 1〉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 추이



자료: 국제금융센터.

■ **일본 국채금리 상승의 주된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초기 성공 때문임.**

- 노무라연구소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조치의 목표인 “2년 안에 2% 물가상승”은 물가 상승 기대감을 높여 국채금리가 상승하였다고 분석하며, 이로 인한 국채 가격 급락과 금리 급등을 전망함.
  - 또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초기 성공으로 증시가 급등하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국채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분석하였음.

■ **그러나 금리 상승으로 일본의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됨.**

- 일본 정부 부채는 3월 말 현재 991조 6,000억 엔(약 1경 1천 20조 원)으로 IMF는 2013년 말 일본 국내총생산(GDP)의 245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.
  - 2013년 일본 정부의 이자 등 부채 상환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예산의 24% 수준이며 2014년에는 23조 8,000억 내외(약 265조 내외)로 예상되고 있음.
  - Moody's는 2013년 4월부터 일본 국채 금리가 0.32%p 상승하여 채무 상황 부담이 3,200억 엔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음.
- 일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채무 상황 부담으로 일본도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.

■ **한편, 일본 국채 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올라왔고 2012년 초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현재의 국채 금리 상승이 재정위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.**

- 2012년 초 일본 국채 금리는 0.98~1.00% 수준으로 현재 금리보다 높은 수준임.
-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다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실현 될 수 있으나, 현재까지는 그러한 징후가 없다고 보고있음.
- 다만, 과도한 물가상승 기대감으로 금리 상승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, 일본정부는 물가 상승 기대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.

■ **최근의 일본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국채 수익률 변동성 확대는 일본 경제정책의 국채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.**

- 5월 28일 기준 미국의 5년물 국채 금리는 1.028%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일 대비 0.127%p, 전분기대비 0.26%p 상승한 것임.

-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도 5월 29일 전일대비 0.11%p 증가한 2.75%, 5년물은 0.12%p 증가한 2.85%를 기록하였음.
- 미국과 일본의 금리 상승은 장기적으로 두 나라의 출구전략 시기와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채권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(WSJ, FT 등)